

## 마태오 복음서 23장

23장은 유당교 회당과 논쟁을 벌이는데 유용한 예수님의 말씀들을 모아 놓았는데,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에 대한 서술(1-12절); 이들에 대한 한탄(13-31절); 두 가지 질책과(32-33절) 예수님의 상대자들에게 닥칠 준엄한 심판의 예고(34-36절); 예루살렘에 내리는 꾸지람(37-39절)이다.<sup>1)</sup>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을 꾸짖으시다**(마르 12,38-40; 루카 11,39-52; 20,45-47)

- 1 **그때에 예수님께서 군중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 2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
- 3 **그러니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다 실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라 하지 마라. 그들은 말만 하고 실행하지는 않는다.”<sup>2)</sup>**
- 4 **또 그들은 무겁고 힘겨운 짐을 묶어 다른 사람들 어깨에 올려놓고, 자기들은 그것을 나르는 일에 손가락 하나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

- 1)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스승이며 입법자인 모세의 합법적인 후계자요 해설가임을 뜻한다. 율법 학자들은 대부분 바리사이들이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들의 권위를 인정하시는 것이다.<sup>3)</sup>
- 2) ”짐“은 법 규정 전체를 가리키는 유다교의 표현 방식으로, 율법 학자들이 바로 이 규정들의 수호자들이다.<sup>4)</sup> 하지만 이들은 백성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sup>5)</sup> 말만 하고 실천이 없는 위선적인 모습을 보였다.

---

1) 주석 성경, 마태오 복음서, 138쪽, 각주 1.

2) 신명 17,10 : 너희는 주님께서 선택하시는 곳에서 그들이 너희에게 알려 준 판결대로 해야 한다. 그들이 너희에게 지시하는 그대로 명심하여 실행해야 한다.

말라 2,7-8 : 사제의 입술은 지식을 간직하고 사람들이 그의 입에서 법을 찾으니 그가 만군의 주님의 사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길에서 벗어나 너희의 법으로 많은 이를 넘어지게 하였다. 너희는 레위의 계약을 깨뜨렸다. —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

로마 2,17-24 : 그런데 그대는 자신을 유대인이라고 부르면서 율법에 의지하고 하느님을 자랑하며, 율법을 배워 하느님의 뜻을 알고 무엇이 중요한지 판단할 줄 안다고 합니다. 또 자신이 눈먼 이들의 인도자고 어둠 속에 있는 이들의 빛이라고 확신하며, 율법에서 지식과 진리의 진수를 터득하였으므로 어리석은 자들의 교사이며 철없는 자들의 선생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남은 가르치면서 왜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 왜 그대는 도둑질을 합니까? 간음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왜 그대는 간음을 합니까? 우상을 혐오한다고 하면서 왜 그대는 신전 물건을 훔칩니까? 율법을 자랑하면서 왜 그대는 율법을 어겨 하느님을 모욕합니까? 과연 성경에, “하느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다른 민족들 가운데에서 모독을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3) 위, 각주 2.

4) 위, 각주 3.

5) 1티모 4,12 : 아무도 그대를 쫓다고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러니 말에서나 행실에서나 사랑에서나 믿음에서나 순결에서나, 믿는 이들의 본보기가 되십시오.

1베드 5,3 : 여러분에게 맡겨진 이들을 위에서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 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5 그들이 하는 일이란 모두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다.<sup>6)</sup> 그래서 성구갑을 넓게 만들고 옷자락 술을 길게 늘인다.<sup>7)</sup>

- 1) "성구갑"은 율법의 핵심이 되는 말씀을 적은 양피지를 넣은 조그마한 가죽 상자로, 유다인들은 늘 또는 기도할 때 이것을 이마와 왼쪽 위팔에 매달았다. 그리고 바리사이들은 "옷자락 술"을 편협한 신앙심으로 다른 사람보다 기다랗게 만들어 달았다.<sup>8)</sup>
- 2) 주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실천해야 함에도,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칭찬과 높임을 받으려는 교만함에 빠졌다.

6 잔칫집에서는 윗자리를,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7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사람들에게 스승이라고 불리기를 좋아한다.

- 1) "윗자리"는 잔칫집 주인의 바로 오른쪽 자리로서, 제일 높은 음식으로 가장 먼저 대접을 받는 자리요, "장터"는 고을이나 마을의 모든 공적인 생활이 전개되는 곳이다.<sup>9)</sup>
- 2) 예수님께서서는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명예심과 교만함을 지적하시는 것이다.

8 그러나 너희는 스승이라고 불리지 않도록 하여라. 너희의 스승님은 한 분뿐이시고 너희는 모두 형제다.

9 또 이 세상 누구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너희의 아버지는 오직 한 분, 하늘에 계신 그분뿐이시다.

10 그리고 너희는 선생이라고 불리지 않도록 하여라. 너희의 선생님은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 1)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교리 교사의 직무 수행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하느님께만 속한 권위를 자기 것인 양 행사하지 말라는 것이다.<sup>10)</sup>
- 2) 교회에서 봉사의 직무를 맡은 사람들은 자기의 명예나 유익을 위해 일해서 안 되며, 오직 주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만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

---

6) 아모 4,5 : 누룩 든 빵을 감사 예물로 살라 바치고 큰 소리로 자원 예물을 공포하여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런 것들이 너희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냐?" 주 하느님의 말씀이다.

7) 민수 15,38-39 :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말하여, 대대로 옷자락에 술을 만들고 그 옷자락 술에 자주색 끈을 달게 하여라. 그리하여 너희가 그것을 볼 때마다, 주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실천하고, 너희 마음이나 눈이 쏠리는 것, 곧 너희를 배신으로 이끄는 것에 끌리지 않도록 하는 술이 되게 하여라.

8) 앞, 139쪽, 각주 4.

9) 위, 각주 5,6.

10) 위, 각주 8.

- 11 너희 가운데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12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sup>11)</sup>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형제적 겸손이 바탕을 이루어야 함을 가르치시는 것이다.  
 그 모범은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 13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하늘 나라의 문을 잠가 버리기 때문이다. 그러고는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려는 이들마저 들어가게 놓아두지 않는다. (14).  
 15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개종자 한 사람을 얻으려고 바다와 물을 돌아다니다가 한 사람이 생기면, 너희보다 갑절이나 못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이다.

- 1) “개종자”는 유대인이 아닌 이민족으로서 할례를 받고 유대교, 특히 바리사이들의 엄격한 율법 준수 신앙을 받아들이는 이를 말한다.<sup>12)</sup>  
 2)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위선적인 행동은 사람들의 걸림돌이 되었다. 이들은 추종자들의 수를 늘리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들마저도 위선적인 행동을 하게 되었다.

- 16 불행하여라, 너희 눈먼 인도자들아!<sup>13)</sup> ‘성전을 두고 한 맹세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성전의 금을 두고 한 맹세는 지켜야 한다.’고 너희는 말한다.  
 17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무엇이 더 중요하냐? 금이냐, 아니면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sup>14)</sup>  
 18 너희는 또 ‘제단을 두고 한 맹세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제단 위에 놓인 예물을 두고 한 맹세는 지켜야 한다.’고 말한다.  
 19 눈먼 자들아! 무엇이 더 중요하냐? 예물이냐, 아니면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 이냐?  
 20 사실 제단을 두고 맹세하는 이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고,  
 21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 이는 성전과 그 안에 사시는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며,<sup>15)</sup>

11) 욥 22,29 : 사람들이 내리눌리면 자네는 “일어서게.” 하고 그분께서는 기가 꺾인 이들을 구해 주신다네.

잠언 29,23 :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고 마음이 겸손하면 존경을 받는다.

12) 앞, 각주 13.

13) 로마 2,19-20 : 또 자신이 눈먼 이들의 인도자고 어둠 속에 있는 이들의 빛이라고 확신하며, 율법에서 지식과 진리의 진수를 터득하였으므로 어리석은 자들의 교사이며 철없는 자들의 선생이라고 확신합니다.

14) 탈출 29,37 :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하여 그것을 성별하여라. 그러면 제단은 가장 거룩한 것이 되고, 거기에 닿는 것도 모두 거룩하게 된다.”

15) 1열왕 8,13 : 그런데 제가 당신을 위하여 웅장한 집을 지었습니다. 당신께서 영원히 머무르실 곳임

**22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 이는 하느님의 옥좌와 그 위에 앉아 계신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

- 1) 예수님은 맹세나 서원의 원칙 자체를 비판하지 않는다. 바리새인들이 시시콜콜 이런저런 경우를 따지면서, 이와 관련된 관습을 위선적인 것으로 만들어 버리고, 또 율법의 기본 계명이 아니라 후차적이고 부차적인 갖가지 규정으로 사람들의 신심을 궁지로 모는 것을 탓하시는 것이다.<sup>16)</sup>
- 2) “금”은 성전을 장식한 금, 성전 의식에 쓰이는 금 기물, 성전 금고에 저장된 금 가운데서 어느 것을 가리키는지 분명하지 않지만,<sup>17)</sup>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들은 성전이나 제단보다 성전에 바쳐진 헌금과 예물을 더 중시하였다. 그들은 하느님을 사랑하기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 3) 성전과 제단은 하느님 현존의 상징이다. 그리고 예물은 하느님 공경의 외적인 표현이다. 하지만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들은 하느님 공경보다 예물에 대한 탐욕에 눈이 멀었다.

**23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자들아! 너희가 박하와 시라와 소회향은 십일조를 내면서,<sup>18)</sup> 의로움과 자비와 신의처럼 율법에서 더 중요한 것들은 무시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십일조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바로 이러한 것들을 실행해야만 했다.<sup>19)</sup>**

**24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는 작은 벌레들은 걸러 내면서 낙타는 그냥 삼키는 자들이다.**

- 1) 십일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의 실천이다.
- 2) 바리새자들 가운데서도 엄격한 사람들은 부정한 벌레들이 들어 있을까 염려하여, 물이나 술을 체나 천으로 갈라 마셨다. “낙타”는 당시 사람들에게 알려진 가장 큰 짐승이다.<sup>20)</sup>

---

니다.”

시편 26,8 : 주님, 저는 당신께서 계시는 집과 당신 영광이 깃드는 곳을 사랑합니다.

이사 66,1 :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이 나의 여좌요 땅이 나의 발판이다. 너희가 나에게 지어 바칠 수 있는 집이 어디 있느냐? 나의 안식처가 어디 있느냐?

사도 7,49 :

16) 앞, 140쪽, 각주 15.

17) 위, 각주 16.

18) “시라”는 1미터 정도 곧추 자라는 다년초로, 유대인들은 향기가 나는 그 씨를 양념으로 썼다. “소회향”은 30센티미터 정도 자라는 1년생 풀로 그 씨를 빵과 다른 음식의 맛과 향을 돋우는 데에 썼다. 박하는 매우 흔하였고, 시라와 소회향은 들에서 그냥 자라기도 하지만 경작하기도 하였다. 바리새자들은 전통적인 십일조 관습을 이처럼 작은 농작물에까지 확대한 것이다(위, 각주 17.)

19) 레위 27,30 : 땅의 십분의 일은, 땅의 곡식이든 나무의 열매든 모두 주님의 것이다. 주님에게 바쳐진 거룩한 것이다.

미카 6,8 :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이고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께서 너에게 이미 말씀하셨다. 공정을 실천하고 신의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느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3) 신앙생활은 형식보다는 실천이 중요하고, 실천이 없는 신앙생활은 무의미하거나 무가치한 것이다.

- 25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야! 너희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그 안은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 26 눈먼 바리사이야! 먼저 잔 속을 깨끗이 하여라. 그러면 겉도 깨끗해질 것이다.
- 27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야! 너희가 겉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은 죽은 이들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회칠한 무덤 같기 때문이다.<sup>21)</sup>
- 28 이처럼 너희도 겉은 다른 사람들에게 의인으로 보이지만, 속은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하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외적인 정결을 중시하였지만, 그들 안에는 탐욕과 부정(不正)으로 가득하였다. 그러나 사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깨끗함이다. 사람은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이 말과 행위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사람은 먼저 내적으로 깨끗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위선이다.

- 29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야! 너희가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묘를 꾸미면서,
- 30 ‘우리가 조상들 시대에 살았더라면 예언자들을 죽이는 일에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고 말하기 때문이다.
- 31 그렇게 하여 너희는 예언자들을 살해한 자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언한다.<sup>22)</sup>
- 32 그러니 너희 조상들이 시작한 짓을 마저 하여라.
- 33 너희 뱀들이야, 독사의 자식들이야! 너희가 지옥형 판결을 어떻게 피하려느냐?

- 1) 당시의 유대인들은 조상들이 잘못해서 처형해 버린 위인들의 무덤을 속죄하는 뜻에서 단장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sup>23)</sup>
- 2) “너희 조상들이 시작한 짓을 마저 하여라.”라는 예수님의 죽음을 가리키며 비아냥거리는 표현이다.

---

20) 위, 각주 18.

21) 당시에는 천연/인공 동굴을 무덤으로 많이 사용하였는데, 우리나라의 봉분처럼 특별히 표가 나지 않을 수가 있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무덤들은 일 년에 한 번씩 겉에 회칠을 하였다. 성전으로 순례 오는 이들이 특히 밤 같은 때에 모르고 몸이 닿아 부정하게 됴으로써, 선전 전례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조치이다(위, 각주 20)..

22) 사도 7,52 : 예언자들 가운데 여러분의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의로우신 분께서 오시리라고 예고한 이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은 그 의로우신 분을 배신하고 죽였습니다.

1테살 2,16 : 우리가 다른 민족들에게 말씀을 전하여 구원을 받게 하려는 일을 방해합니다. 이렇게 그들은 자기들의 죄를 계속 쌓아 갑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들에게 진노가 닥쳤습니다.

23) 위, 141쪽, 각주 21.

3) 뱀이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듯, 위선자들도 사람들에게 악한 표양을 보이며 해를 끼친다. 그들은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

34 그러므로 이제 내가 예언자들과 현인들과 율법 학자들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면 너희는 그들을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또 이 고을 저 고을 쫓아다니며 박해할 것이다.

35 그리하여 의인 아벨의 피부터, 너희가 성소와 제단 사이에서 살해한 베레크야의 아들 즈카르야의 피에 이르기까지, 땅에 쏟아진 무죄한 피의 값이 모두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36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모든 것이 이 세대에 닥칠 것이다.”

1) 예수님께서서 예언자들을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에게 보낼 때 그들의 조상들이 그랬듯이 핍박하고 박해하며 죽일 것이다. 그들의 조상들과 다를 바가 없음을 증명할 것이다.

2) “이 모든 것”은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행한 악행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들은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경고하시는 것이다.

**예루살렘을 두고 한탄하시다(루카 13,34-35)**

37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자기에게 파견된 이들에게 돌을 던져 죽이기까지 하는 너!<sup>24)</sup> 암탉이 제 병아리들을 날개 밑으로 모으듯, 내가 몇 번이나 너의 자녀들을 모으려고 하였던가? 그러나 너희는 마다하였다.

38 보라, 너희 집은 버려져 황폐해질 것이다.<sup>25)</sup>

39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어라.’ 하고 말할 때까지, 정녕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

24) 사도 7,59 : 사람들이 돌을 던질 때에 스테파노는, “주 예수님, 제 영을 받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였다.

1테살 2,15-16 : 유대인들은 주 예수님을 죽이고 예언자들도 죽였으며, 우리까지 박해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느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자들이고 모든 사람을 적대하는 자들로서, 우리가 다른 민족들에게 말씀을 전하여 구원을 받게 하려는 일을 방해합니다. 이렇게 그들은 자기들의 죄를 계속 쌓아 갑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들에게 진노가 닥쳤습니다.

25) 1열왕 9,8 : 그리고 이 집은 폐허가 되어, 이곳을 지나는 사람마다 몹시 놀라고 휘파람을 불어 대며 이렇게 말할 것이다. ‘어찌하여 주님이 이 땅과 이 집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토빗 14,4 : 서둘러 메디아로 피신하여라. 나훔이 니네베를 두고 선포한 하느님의 말씀을 나는 믿는다. 그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아시리아와 니네베에 그대로 실현될 것이다. 하느님께서 파견하신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이 한 말씀이 모두 실현될 것이다. 그 말씀들은 하나도 빠지지 않고 모두 제때에 성취될 것이다. 그러나 아시리아나 바빌론보다 메디아가 더 안전하다. 하느님께서 하신 말씀은 모두 그대로 실행되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나는 알고 또 믿는다. 그 말씀들은 하나도 어김이 없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사는 우리의 동포들은 모두 그 좋은 땅에서 쫓겨나 흩어지고 유배를 갈 것이다. 이스라엘의 온 땅이 황무지가 될뿐더러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까지 황무지가 되고, 하느님의 집은 불에 탄 채 얼마 동안 슬픔에 잠겨 있을 것이다.

- 1) 새끼들을 보호하는 어미 새 날개의 상징은 구약성경에서 하느님과 관련해서 쓰인다. 곧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하느님을 상징한다. 여기서는 예수님을 상징한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셔서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다.<sup>26)</sup>
- 2) “집”은 예루살렘 전체나 이스라엘 또는 성전을 가리킨다.<sup>27)</sup>
- 3)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어라.’는 메시아를 영접하는 환호이다. 이는 예수님의 수난과 공생애의 끝, 또는 죽음과 영광중에 그분께서 다시 오심을 가리킨다.

---

26) 앞 각주 30.

27) 위, 각주 31.